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60)

# 愚公移山

우공이 산

어리석은 영감, 산을 옮기다.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일전에 몇몇 원로(元老) 역사학자들과 역사학의 당면 문제를 가지고 좌담회를 가진 일이 있다. 이때 여기에 참석한 어느 분이 나를 만나자 느닷없이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북쪽에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북산(北山)에 우공(愚公)으로 불리는 나이가 90세인 영감이 산을 마주하고 거처하였다. 그런데 산의 북쪽이 막혀 있어서 외부로 출입하려면 고통스럽게 빙빙 돌아가야 했다.

이 일화는 『열자(列子)』의 「탕문(湯問)」에 실린 간단한 이야기이다.

태행산(太行山)과 왕옥산(王屋山)은 사방으로 7백 리(里)이고 높이는 1만 길인데 본래는 기주(冀州)의 남쪽, 하양(河陽)의 북쪽에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북산(北山)에 우공(愚公)으로 불리는 나이가 90세인 영감이 산을 마주하고 거처하였다. 그런데 산의 북쪽이 막혀 있어서 외부로 출입하려면 고통스럽게 빙빙 돌아가야 했다.

식구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나와 너희들이 힘을 다하여 험한 산을 평평하게 만들면 예주(豫州)의 남쪽으로 갈 수 있고, 한음(漢陰)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을 것인데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듣고 식구들은 분분하였지만, 집안의 어른 말이라 대체로 찬성하였다. 이때 그의 부인이 말하였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하남(河南) 땅에 있는 조그만 과부산(魁父山)에 있는 언덕배기를 털어낼 수도 없을 것인데, 태행산과 왕옥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파낸 흙과 돌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그것은 발해(渤海)의 해변과 은토(隱土)라는 곳의 북쪽에다 버리겠소." 현실감 없는 대답으로 들렸다. 드디어 자손을 인솔하고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집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세 명밖에 안 되었지만,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산태기에 담아서 발해 해변으로 운반하였다. 이웃 사람으로 경성(京城)이란 성(姓)을 가진 과부(寡婦)의 유복자인 7, 8세 정도의 아이가 뛰어와서 도왔는데 추운 계절과 더운 계절이 한 바퀴 돌아 1년을 넘겼다.

이름 본 과곡(河曲) 사람으로 스스로 지혜로운 늙은이라고 부르는 지수(智叟)가 웃으면서 이를 저지(沮止)하면서 말하였다. "정말 너무 심하시오. 그대는 지혜롭지 못하군요. 남은 세월 남은 힘으로는 산에 있는 터럭 하나도 헐어낼 수 없을 것인데 흙과 돌을 어찌하려는

것이요?" 우공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대의 마음은 완고하고, 완고하면 고칠 수 없을 것이요. 일찍이 과부의 어린애만도 못하구려. 비록 내가 죽는다고 하여도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은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손자는 또 아들을 낳아서 다하지 않을 것이지만, 산은 커지지는 않을 것인데 왜 평평해지지 않을까를 근심하시오." 생각을 가지고 살아 있는 사람은 무공하게 대를 이어 갈 수 있지만 살아 있지 않은 산이야 떨어낸 만큼 적어지고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였다. 하곡에서 온 스스로 지혜롭다는 늙은이 지수(智叟)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뱀을 부리는 신(神)이 이 소문을 듣고 그가 중지하지 않으면 자기 집이 없어질까 두려워한 나머지 천제(天帝)에게 일러바쳤다. 그러나 천제는 우공을 혼내는 대신 그의 정성에 감동하여 기력(氣力)이 아주 큰 과아씨(夸娥氏)의 두 아들에게 명령하여 두 산을 짊어지다가 하나는 지금 산이 많은 산서지역인 삭동(朔東)에다 놓게 하고, 다른 하나는 지금 섬서(陝西), 감숙(甘肅)지역인 웅(雍)의 남쪽에다 놓게 하였다. 이후로 기주(冀州)의 남쪽과 한수(漢水)의 남쪽에는 구릉이 없게 되었다. 이것은 말하자면 중원(中原)지역의 탄생 설화인 셈이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등장하는 우공(愚公)과 지수(智叟)가 대비된다. 보통 어리석다는 우(愚)는 싫어하고 지혜롭다는 지(智)는 갖기 좋아한다. 그러나 작자는 왜 어리석다는 사람에게 공(公)이라는 존칭어를 붙이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에게 수(叟), 즉 늙은이라는 말을 붙여 주었는가? 왜 그랬을까?

요즘 세상엔 약아빠진 사람들이 활개 치는 세상이다.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고 부채 대신 에어컨을 집집마다 들여놓았다. 청소하기 싫다고 청소 로봇을 장만한다. 어디 그뿐인가? 공부하고 보고서 쓰기 싫다고 Chat GPT를 애용한다.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뒤떨어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법석이다. 드디어 이리더가는 로봇에게 인간이 지배되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이도 있다. 각설하고, 그 원로 교수가 나에게 왜

우공이산(愚公移山)을 끄집어내어 말을 걸었을까? 나를 우공(愚公)으로 부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기는 자치통감(資治通鑑)을 볼때 이미 50년의 세월을 보냈고, 아직도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 역사를 시작하여 220권 중에 이미 140권까지 마쳤으니 앞으로 3, 4년을 더 해야 끝날 판이다. 이것이 끝나면 우공의 우화에 비유컨대 빙빙 돌지 않고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자치통감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는 효과가 겨우 예수에 가고 한음에 가는 정도의 편리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되었듯이 몽골족 쿠빌라이는 자치통감을 공부하며 몽골 제국을 건설하였고, 우리의 세종대왕은 자치통감을 가지고 5천 년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문화를 건설하지 않았는가? 모택동은 이 책을 읽으면서 1850년 아편전쟁 이후로 4분 5월 된 중국을 통일하였다. 현재의 이 혼란한 국제정세나 남북이 대치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자치통감을 읽으면서 이러한 위대한 지도적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환경작가는 대하드라마 연개소문을 집필하면서 나의 역주 자치통감을 읽으며 50부작을 완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출연진과 진행요원들을 합하면 몇 명쯤 될까? 이렇듯 자치통감은 미래 우리 먹거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자치통감과 속자치통감 합하여 근 1천 8백 년의 통사라는 도도한 인간의 변화를 그려낸 것을 바탕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예술적 감각으로 만들어질 멋진 드라마, 영화, 음악 같은 예술작품을 기대한다. 이것이 소소한 일을 기계로 대신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를 먹여 살릴 자료의 광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 원로 교수의 말대로 학자들 가운데 정년하고 연구를 계속하는 사람이 드물다. 우공은 적고 지수는 많은 셈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삶이 하루살이 삶도 아닌데 1백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短見)으로 인문학은 활용성이 적다고 이를 멀리하고 AI로 몰린다. 안타깝게도 인문학 없이 AI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공이산 같은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 안동권씨 대표문중(大瓢門中) 취회(聚會)

안동권씨 대표문중 취회가 7월 15일(토) 11시에 영주시 부석면 감곡리 마을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원래는 망우당 정자와 화수헌(花樹軒)을 둘러보고 화수헌 정자에서 열기로 계획하였으나 연일 장맛비로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것이다. 대표문중(大瓢門中)은 북야공파 판서공(권인權, 15世)의 현손인 사맹공(司猛公) 권숙형(權叔衡)의 자손 문중이다. 이날 취회에는 권영창 대총회장, 권갑현 총보편집위원장, 진사공계 4명, 북야공파 청장년 회원 등도 초대되어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혁태(權赫泰) 석남문중(石南門中) 총무의 사회로 개회, 선조 묘소 망배, 상견례, 회장인사, 석남문중 회장 인사, 축사, 화수헌 입향 내려 보고,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혁창(權赫昌) 대표문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중에 타 문중에서까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대표 문중은 사맹공 할아버지 후손 3,300여 명이나 되는 대문중으로 매년 가을 향사에는 30여 명이 참석한다. 앞으로도 많은 분이 참석하여 문중의 화합을 다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영표(權寧杓) 석남문중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화수헌은 사맹공의 손자이고, 망우당은 화수헌의 손자이다. 오늘 축전 간 화합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권영창 대총회 회장은 축사에서 "북야공파 34세이며 봉사공계라고 소개한

다음, 같은 파조의 자손으로 축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영주 시장 등 많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대총회장은 장관급 이상이였다. 영주 시장 경력임에도 만장일치로 추대를 받았기에 거절할 수 없어 수락하였다. 대총회 업무를 파악 중에 있다. 중요한 문제는 대총회 정관에는 안동권씨 후손과 머니리는 모두 회원으로 되어 있다. 현재 대총회는 임원들 위주, 찬조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1년에 약 1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직원 4명 월급 주고 나면 적자다. 현재 빚도 상당하다. 우리 모두가 회원이니 회원 등록을 부탁드린다. 회원을 등록하여 회비로 운영하면 좋겠다. 올해 1만 명 회원 등록 운동을 벌이고 있다.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 전국청장년회 체육대회가 2024년에는 안동에서, 2025년에는 영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총회 발전과 지역 종친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권기호(權奇浩) 북야공파회 직전 회장은 축사에서 "우리 후손들이 많은데 직장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열성과 성의가 있어 감사하다. 대표 문중 취회는 노동, 송사동, 석남 등지로 돌아가면서 열여 왔다. 앞으로 크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권영창 대총회 회장을 잘 보좌하여 대총회 발전에도 앞장서지"고 하였다.

이어서 화수헌 입향 내려 보고와 기타 협의를 마친 후 폐회를 하고, 점심으로 삼계탕을 먹으며 축전들 간에 화기에 애한 친목을 다졌다.

하루종일 내린 장맛비로 인해 조상의 유적지를 찾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대총회, 지역 종친회, 소문중 별로 축전들이 단합하여 권문(權門)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는 세찬 빛줄기보다 더 거세었다.

북야공파총회 부회장 권오주(權五鍾)

## 안동권씨 대총회 정관 개정

2023년 5월 24일 제47차 안동권씨 대총회 정기총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위임한 대총회 기구 및 예산안에 대해 7월 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기구 신설 등 대총회 운영에 필요한 정관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먼저 회장단회를 신설하여 지금까지 의사결정에

서 소외되었던 부회장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석부회장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였으며, 회장 선임을 다루는 정관 제10조 1항의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로 변경하였다. 신설된 회장단회(정관15조)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단회는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부회장은 사회적인 덕망과 애족정신이 높은 종친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③ 회장단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부회장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 ④ 회장단회는 대총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안전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된 정관은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행원 편집국장

## 권오수 부회장 가스안전캠페인 및 자원봉사 실시

권오수(35세, 좌윤공파, 대총회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가스기술연합회 회장 및 한국에너지관리자격을연맹회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스안전 캠페인 및 주변 환경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자원봉사단은 2007년에 회원 중심으로

로 조직하여 현재까지 매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권 회장은 7월 29일 서울 디지털엠포아빌딩 세미나실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신청자 45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 공조 냉동, 배관 용접, 배관 적산 실무 등에 대해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했다. 권행원 편집국장

### 오래된 미래의 초상

## 1402 강리도

김선홍 전 외교관

강리도란? 1402(태종2년) 조선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로서 정식 명칭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壹疆理歷代國都之圖>입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Kangnido/Gangnido라 불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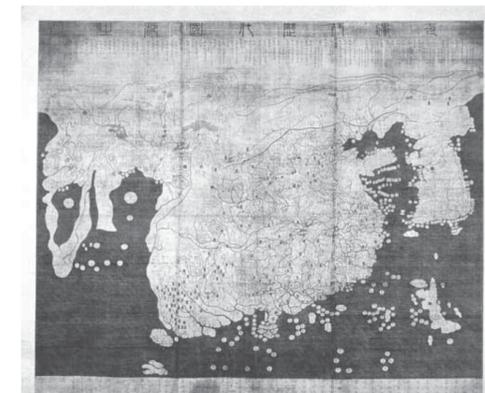
1402년의 원본은 사라지고 없고 네 종의 필사본 혹은 수정본이 전해 옵니다. 이 네 본의 강리도는 모두 15-16세기에 조선에서 그려졌지만 단 하나도 우리나라에 남아 있지 않고 전부 일본에 가 있습니다. 현재 교토의 류코쿠궁대학, 나라시奈良市の 덴리天理대학, 그리고 혼코지本光寺 및 혼코지本妙寺라는 사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토의 류코쿠궁대학 소장본(위의 지도)인데 1480년대 초반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두리를 포함하여 가로 172cm, 세로 164cm의 대형지도로서 비단 바탕에 그린 채색도입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 '1402 강리도'를 보는 셈입니다. 통상 우리가 '1402 강리도'라 일컫는 것은 이 지도입니다.

지도의 상단을 보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壹疆理歷代國都之圖)라는 이름(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음)이 적혀 있고

하단에는 권근의 발문(후기)이 실려 있습니다. 권근이 글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강리도의 진실은 아마도 영원히 미궁에 묻혀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를 최초로 그린 세계지도가 조선 땅에서 그 옛날 1402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바로 권근의 기록 덕분입니다. 권근의 발문은 강리도의 제작 연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제작 동기 및 경위, 직간접으로 참여한 인물(좌정승 김사형, 우정승 이무, 참찬 권근, 겸상 이회), 참고한 지도(몽골 원나라의 두 지도)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문에는 당시 지도 제작자들의 세계관과 지리관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크게 그렸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외국자료들을 폭넓게 수집, 참고한 선조들은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합성한 것이 아니라 면밀히 연구·검토·교정된 후 주제적인 구도하에 세계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걸작이 탄생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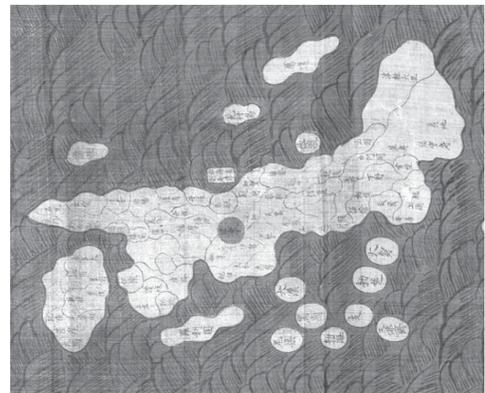
지도 제목과 권근의 글이 실린 것으로서는 1988년까지 류코쿠대 소장본이 유일무이했습니다(덴리대본과 혼코지본에는 제목과 후기가 없음). 현대 1988년 또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壹疆理歷代國都之圖)

하나의 놀라운 강리도가 발견되었으니 바로 혼코지本光寺본입니다. 나가사키현의 고찰인 혼코지本光寺에 소장된 이 지도가 놀라다고 하는 것은 지도 상단에 제목이, 하단에 권근의 발문이 적혀 있을 뿐 아니라 류코쿠본의 약 두 배의 크기(220 X 290cm)에 더욱 자세한 지리 형세와 더 풍부한 지리역사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류코쿠본에는 일본의 방위가 시계방향으로 90도 잘못 돌아가 있으나 혼코지본에는 바로잡혀 있습니다.

강리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당대 가장 우수한 세계지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보경(전 성신여대총장, 전 대한지리학회 회장, 현 성신여대 명예교수, '지도의 날' 제



류코쿠본에서 일본 방위를 바로잡은 모습

정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강리도 소개 글입니다. <1402년, 가장 넓은 세계를 그린 당대 최고의 지도>

조선 건국 후 10년만인 1402년(태종 2) 조선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이며, 당대 세계지도 중 가장 훌륭한 지도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도에 크게 그려진 조선 부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전국지도이기도 하다. 크기면에서 보면 조선이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게 그려져 있다. 이는 오류가 아니다. 이는 조선 초기 조선의 자부심, 조선 중심적인 자아 인식의 공간적 투영이다. 이 지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

가 사실적으로 그려진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당대 가장 훌륭한 세계지도로서 한국을 넘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그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1488년 바르톨로뮤 디아스의 희망봉 발견, 1498년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해의 결과로 1502년 칸티노의 세계지도에 아프리카 대륙이 제모습을 갖추게 된다. 서양보다 100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을 사실적으로 그린 점은 세계인을 놀라게 한다.

또한 이 지도는 동서문명의 교류를 보여주는 흔적들이 가득 담겨있는 귀중한 세계적 문화유산이다. 이 지도는 기본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의 지도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 중세 이슬람의 지도학적 지식, 유럽, 아프리카,

아라비아의 많은 지명들이 동서문명의 교류로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지도는 일본에만 4종의 사본이 소장돼 있어 국내에서 연구와 소개가 잘 돼 있지 않았다. 일본 소장본 중 류코쿠(龍谷)대학 소장본은 가장 대표적인 초기 사본으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양보경)

이 놀라운 지도에 대하여 우리가 내내 눈을 감고 묵언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 나라 밖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찬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충격적이다." "신대륙 발견(?)이전에 나온 것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세계지도이다." "다른 모든 지도들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린다." "망연자실하게 만든다.".....등등.

"강리도는 당시 가장 웅장한 지도로서 동시대 서양이나 아랍의 모든 세계지도를 무색케 해버린다." (조지프 니덤 Joseph Needham)

강리도는 최초의 한국전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당대 세계지도의 최고봉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단순한 지도를 넘어 동서고금의 역사지리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시각문헌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겨례의 웅혼한 기상을 내뿜는 심상도心象圖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어느모로 보나 더없이 소중한 자랑스러운, 만대에 빛날 세계사적 문물입니다. 이러한 찬사가 생소하고 의아스럽다면 그것은 이 지도가 모국에서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